

Y2K인증센터 개원

협회는 지난 '99년 1월 12일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강남빌딩 8층에서 정보통신부장관 및 여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2K인증센터」개원식을 가졌다.

「한국Y2K인증센터」는 국가사회 전반의 위기 극복 과제인 Y2K문제해결과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의 견인적 역할과 국내의 Y2K문제 해결에 대한 인증 요구에 대처, 외국의 거래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Y2K진행상황 확인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제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Y2K문제 해결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여 만든 민간자율 기관이다.

“한국Y2K인증센터”의 영문 명칭은 “Y2K Certification Center of Korea”이며 약칭은 “Y2KCC”이다.



전남지역 Y2K 대응촉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98. 11. 27(금) 광주에서 김인식 전남체신청장 및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Y2K 대응 촉진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발표내용은 ▲Y2K대응·지역정보화 촉진 지원정책(정보통신부 신순식 과장) ▲광주·전남지역 정보화 현황(전남대 김병기 교수, 여수대 장창수 교수, 순천대 김원중 교수) ▲전남체신청 정보통신사업 추진현황(송재면 관리과장, 양동래 정보통신과장) ▲Y2K대응 및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2대 상근 부회장 취임

협회는 지난 1. 2일(토) 오전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상근 부회장 손용기(孫隆基, 61세) 前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손용기 신임 상근 부회장은 전북 익산출신으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66년 체신부 서울저금보험관리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정보통신부 경영분석담당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전북체신청장을 역임하고 지난 3월 18일 전남체신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면서 '98. 4. 1부터 한국정보문화센터 제3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 운영위원〉

구	분	사업자명	직위/성명
위원장		한화역사	이청남 상무이사
		대우정보시스템	박경철 상무이사
		삼성SDS	김종환 전무이사
		쌍용정보통신	조성철 이사
		새한정보시스템	길훈배 이사
운영위원		포스데이타	이영숙 부장
		하나로통신	박재천상무이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임승택상무이사
		현대정보기술	허학송 부장
		LG유통	김명환상무이사
		나래텔레콤	김용원대표이사
분과위원장	재관매1분과 위원장	삼성SDS	송영선부장
	재관매2분과 위원장	고려시스템	김용신본부장
	구내통신분과 위원장	한국통신진흥	최왕균본부장

언론의 역할 ▲Y2K 대응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업계의 역할 (두루넷 박현제 전무)이다.

한편,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지역 Y2K 대응 및 정보화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지방 정보화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98년 12월 22일 이청남 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박경철(대우정보시스템)상무, 김종환(삼성SDS)전무, 조성철(쌍용정보통신)이사, 길훈배(새한정보시스템)이사 등 운영위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화 회의실에서 협의회 운영방안 및 사업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회의의 정식 발족과 더불어 먼저 '99년도 별정통신사업은 상호접속 및 국제정산료 인하 여부와 무선호출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에 진출 예상 등으로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며 기간통신사업자

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망연동 규칙(접속점, 접속료, 고 객정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관련 법률제정과 업계 대응방향」 세미나

협회는 지난 '98. 12월 22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손완수 위원장을 비롯해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제정과 업계 대응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다.

협회의 정장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완수(한국EC협의회) 위원장이 국내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를,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 회)박사가 인터넷 비즈니스 저작권보호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남인석(산업자원부)과장의 「전자거래기본법과 향후 정책방향」, 박정렬(정보통신부)과장의 「전자서명법과 향후 정책방향」, 이경구(정보

보호센터)박사의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른 업계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98국내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협회에서는 국내전자상거래산업의 현황과 환경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전망과 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98국내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대상은 일반인 및 국내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 관련업체이며 조사한 주요내용은 인구통계적 특성 구매고객 대 잠재고객비교, 회사일반현황, 사업추진현황, 쇼핑몰사업전해, 그리고 EC관련사업계획, 보유솔루션, 사업추진부문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자상거래 사업추진 방향을 제공하고 정책당국에는 국가 정보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신용불량자정보(electronic Commerce) 공동관리시스템 개통

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PCS 3사에 이어 무선호

출사업자 13개사, PC통신 및 인터넷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98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정보 공동관리기 본격시행됨에 따라 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용자는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게 됨은 물론 악성 체납자등 신용상태가 아주 불량한자에 대해서는 한국 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업자와 연계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각종 신용카드 이용에도 제한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정보 공동관리 시스템이 본격시행됨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신용불량자 사전차단을 통하여 요금체납자를 줄임으로써 자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가입자를 유치하여 외형만을 키우는 영업행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협회와 정부는 신용불량자정보 공동관리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PC시장 발전방향과 국내 관련업계의 대응」 강연회 개최

협회는 지난 '98년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스텍시스템의 장인범부장을 비롯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회의실에서 대우통신의 강종원팀장의 「세계PC시장 발전방향과 국내 관련업계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멀티미디어가전 분과위원회의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PC시장에서의 주요업체별 시장점유율과 테크놀로지의 변화, 거래유형의 변화, 그리고 각국의 시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시기, Internet, e-business market의 급속한 성장에 적극적인 대비, IMF하의 경제 위기가 제2의 도약 시발점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제4차 인터넷정보검색사 시험 실시

인터넷인증시험위원회는 지난 '98. 11.3~11.5 실시된 인터넷정보검색사 일반 온라인시험에 이어 '98. 12. 20 2차시험을 실시했다.

1교시, 2교시로 나누어 각 50분간 치루어진 이번 제4회 인터넷정보검색사 시험은 총 13,208명이 응시했는데 평균점수 60점이상으로 654명이 합격하여 49.5%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 '99. 1.6~1.11 응시를 접수한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차시험이 '99. 1. 24 전국 9개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번시험에도 약 3500여명이 응시해 인터넷기술 자격 인증시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규회원사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98. 12월 10일 협회 대회실에서 신규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새로 가입한 신규회원사는 평창정보통신(주)를 비롯한 15개사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활동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제1회 대학 정보통신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미)실리콘밸리 견학

제1회 대학 정보통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실리콘밸리 견학이 지난 '98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이루어졌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견학은 재미 벤처사업가로 성공한 김중훈사장(루스텍테크놀로지 사장)이 설립한 (재)유리벤처장학회의 지원으로 실리콘밸리에 진출해 있는 기업, 벤처캐피탈, 대학 등을 둘러 봄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실리콘밸리의 성공비결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한편, 이번 견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짧은 기간동안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국내에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벤처창업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신범식부회장 퇴임

1994년 10월 협회에 취임한 신범식부회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98년 12월 31일로 퇴임식을 가졌다.

협회는 신범식부회장이 취임한 이래 상근부회장제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으며 4년의 임기동안 협회 독립사옥 확보, 통계청의 정보통신 산업「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정

업체 추천업무 수탁기관」 선정, 「LAN연 구조합」 설립, 「인터넷인증시험위 원회」 구성, 신용정보공공관리 시스템 구축, 「Y2K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